정부 조직개편안 처리 무산…새정부 출범 비상

여야 협상 난항…본회의도 안 열려

'이명박 내각'으로 출발 가능성 커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간의 협상 난항으로 18일에도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내각'과 함께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저녁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6인 회담' 형식으로 협상을 벌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 간의 조율 실패로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협상 타결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물밑접촉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본회의는 박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로 잡혀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경우 본회의는 여야 합의로 이날 이전에도 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심하게 하고 있다"며 "선거에 패배한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되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시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새 정부 출범을 돕고 싶어도 도울 명분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하고 당선인을 설득해 수용 가능한 방안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 강행처리 기류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개편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더 이상 늦어질 경우 여당 단독처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중이어서 여당의 강행처리는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전체 의원 299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154명뿐이고, 각 상임위원회는 대개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강행 처리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한편,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월 초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20~22일 간 실시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

2차 인선에서의 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는 26~27일, 3차 인선 11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3월 초에나 열릴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산 편법증여·국적취득 특혜

장관 후보자들 잇단 의혹 제기

민주당, 총공세 예상

민주통합당은 18일 최근 완료된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우선, 김광진 의원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변칙 증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부인이 리튬전지 군납업체인 비츠로셀의 주식 1000주(576만원상당)를 보유한 것, 장남이 근무한 회사 2곳이 국방부로부터 대형 사업을 수주한 것, 그리고 육군 2사단장 재직시 부대 위문금을 본인 통장에 넣어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인 최모씨가 경남 김해의 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면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부상했다.

박홍근 의원은 당 비대위-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반인은 통상 국적을 회복하는데 2~3개월이 걸리는데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장관 후보자는 신청 후 6일 만에 국적이 회복됐다"며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는 무엇보다 기술보안과 정보보호가 중요한데 오랫동안 미국의 기업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이해관계를 형성해온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심각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이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설립한 회사의 창립에 관여했다며 국익을 추구할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경력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CIA가 설립한 회사인 '인큐텔' 창립에 관여하고 최소한 2005년까지도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등 미국 CIA와 깊숙이 관계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인큐텔은 CIA가 미국 정부의 국방 연구개발비로 운영하는 투자회사로, CIA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닷컴기업에 출자해 원하는 기술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결국 미국 정부기관이나 다름이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직개편 협상 최대 걸림돌

방송통신위 광고정책 이관

여야 첨예한 대립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에 실패한 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이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방을 벌이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해왔다.

인수위의 원안에는 사실상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 권한만 방송통신위에 남기고 다른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의 중앙행정기구 지위를 유지하면서 방송 진흥 정책도 남겨야 한다는 것 입장이다.

이날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방송 진흥 및 규제 기능이 함께 해야 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이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 진흥 정책 가운데서도 광고 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광고 정책이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경우 광고를 매개로 한 여권의 방송장악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방송통신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주파수 분배 및 관리 등 통신 정책의 소관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방송 진흥 정책의 방송통신위 잔류가 이뤄질 경우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쟁점이 돼온 중소기업청의 격상, 원자력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큰 의견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박 당선인의 가이드라인이 세긴 센가 보다. 협상의 절벽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민주통합당을 향해 "정말 한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정말 한번만 새정부 도와주십시오"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민주당에 읍소 '눈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무팀장인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새 정부 한번 도와주십시오"라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을 향해 읍소에 가까운 호소를 해 눈길을 끌었다.

애초 국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로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최고위원은 "대선이 끝난 뒤 박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3번 이상 '한 번만 도와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며 "지금 정부조직 개편 쟁점과 관련, 박 당선인이 나라를 망치게 하자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차피 5년은 박 당선인이 국정책임자로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이 일을 꼭 해야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나라를 흥하게 하자고 내놓은 개편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희망의 새시대'

5대 국정목표·140개 국정과제 선정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희망의 새시대'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인수위는 그동안 각종 국정과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챙겨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종합하고 정리해 '희망의 새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국정과제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실천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라며 "정부부터 행정편의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 우선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이번에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도 이런 원칙에 따라 정부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새 정부가 무리 없이 출발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국정운영을 펼쳐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야당의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광-2696호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국가공인한자·한문지도자사자격등급 (특급·1급·2급·3급)
★모집기간 : 2013년 2월 4일(월) ~ 2013년 3월 7일(목)
★연수기간 : 2013년 3월 7일(목) ~ 2013년 8월 17일(금) (6개월/24주/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2:40 / 오후반 14:00~17:30

과정명	개강일시	수업과목	수업시간	모집인원
아동지도사	3.7(목)오전	• 한자의 기본원리 • 한자 1000자 지도	64시간	30명
기초(2,3급)	3.9(토)오전	• 부수해설·사자소학 • 명심보감·추구	1단계 96시간	30명
심화(1급)	3.8(금)오전	• 소학·대학 • 중용·격몽요결	1단계 96시간	30명
특급(훈장)	3.6(수)오전	• 논어·맹자 • 고문진보	1단계 96시간	30명

★유능한 강사진·저렴한 수강비 등 고객만족 수강하세요
수료·자격취득후 특전
• 방과후 학교 한자·한문지도강사·한문학원 개설
• 각 대학 평생교육원·학원·시·구청·복지관 한자지도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수 강 료 : 350,000원/농협 175375-56-065137(이종순)
▶수강신청 및 접수처 : (사)한자교육 진흥회 광주·전남본부
문의상담 : ☎062)366-9666, 011-607-6292
국가공인 자격관리·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국한자,한문지도사 연수원 시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 , 건강관리협회부근)
E메일 : hanja-exam@hanmail.net

투자 하실 분
▶물건 : 경매 진행물건 중 NPL과 특수물건
▶보장 : 등기/근저당 설정
▶자금 : 1억원 이상
▶기간 : 1년정도
▶수익 : 투자 대비 고수익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배우실 분!
▶분야 : NPL과 특수물건
▶시간 : 주1회, 2시간 3개월 과정
▶특징 : 배우면서 투자가능 1인1물건 낙찰보장
▶수강료 :550만원
(주)오천경매 H.010-4667-93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3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60만원 임대중
3. 매매가, 9000만원
4. 문의 : 010-3605-5000

매매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4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50만원 임대중
3. 매매가, 9000만원
4. 문의 : 010-3605-5000